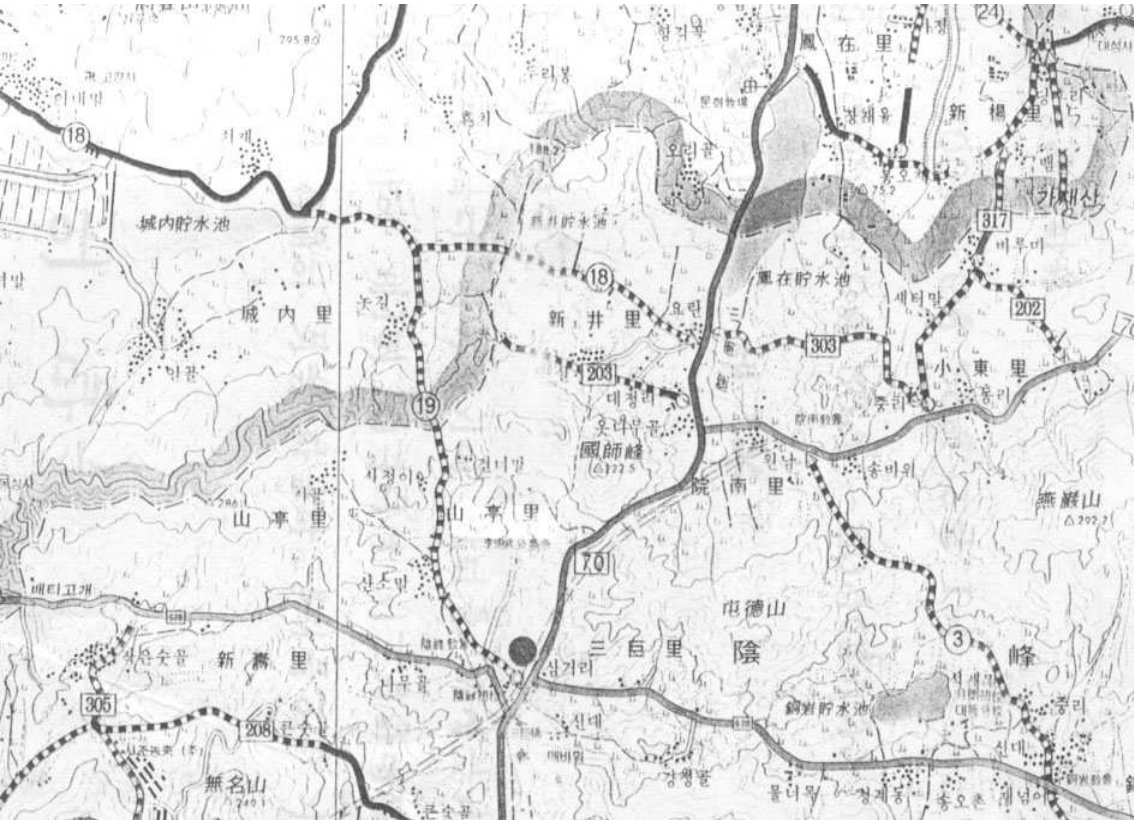


산정리·山亭里

산정리는 본래 아산군 일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거리, 사정리, 산소리를 병합하여 산소와 사정의 이름을 따서 산정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산정리는 사정이, 산숫말, 샷골(사깃골)의 작은 부락이 한마을로 구성된 마을이며 총인구는 318명, 총가구는 106가구로 86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산정리 위치도>



☒ 사정이, 산숫말, 샷골 마을

산정리의 사정이는 산숫말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며 산숫말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소가 있었고(현재는 음봉면 삼거리) 샷골은 사기점이 있으며 나무골은 나무가 많아서 지어진 이름이다.

<조사당시 산정리 마을 관련 사진>



1) 위치

산정리는 경도 127-00-30, 위도 36-51-40에 위치하고 있다. 산정리 앞으로 45번 국도와 628도로가 지나며 음봉 삼거리, 신정리, 신대리, 영인면 성내리와 닿는다.

2) 현황

산정리의 총인구는 318명으로 남자 139명 여자 179명이며 총 106가구가 살고 있고 그중 81%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논은 27ha 밭은 17.5ha이다.

- 인구분포 현황

구분 마을명	계	남자	여자
산숫말	318명	139명	179명

- 생업

구분 마을명	계	농업	기타
산숫말	100%	81%	19%

- 농경지현황

구분 마을명	계	논	밭
산숫말	44.5ha	27ha	17.5ha

- 농기계보유현황

구분	경운기	트랙터	양수기	분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	-----	-----	-----	-----	-----	-----	-----

마을명							
산숫말	31대	6대	10대	4대	6대	20대	3대

- 문화시설

구분 마을명	마을회관	애프	사물놀이악기	방송시설
산숫말	1	1	1조	1

- 연령분포

구분 마을명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
산숫말	26	56	33	34	49	58	30	23	9

- 성씨별분포

구분 마을명	이씨	정씨	민씨	장씨	기타
산숫말	14%	21%	8%	8%	49%

- 학생분포

구분 마을명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산숫말	12명	8명	5명	4명

- 최고령자

85세로 정홍성 할아버지시이다.

- 호당평균소득

약 년/700만원

3) 자연경관

산정리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영인면 성내리와 경계가 된다. 마을앞으로 628도호가 있어 교통이 편리하여 신수리와 영인면 아산리를 잇는 배티고개가 있다.

4) 마을 변천과정

본래 아산군 일북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사기리, 사정리, 산소리를 병합하여 산소와 사정의 이름을 따서 산정리라 하여 음봉면에 편입되었다..

5) 입향

산정리는 제일 먼저 터를 잡고 산 성씨는 정씨로 150년 정도로 추측하였다. 그러나 150년정도면 5대 정도가 되는데 그 이전에도 사람들이 살았던 것으로 본다.

6) 지명

사정이 : 산소말 북쪽에 있는 마을

산소말(산숫말) : 산정리에서 으뜸가는 마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묘소가 있었음.

삿 골 : 사기점이 있었음.

나뭇골 : 산골 너머에 있는 골짜기. 나무가 많음.

산숫골 : 산소말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

재 필 :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산소가 있었던 골짜기

도토마리 고개 : 샛골에서 영인면 성내리로 넘어가는 큰 고개 .

배 티 : 산샛골에서 신수리로 넘어가는 고개 전에 이근처가 바다이어서 이 고개로 배가 넘어 다녔다고 한다.

7) 전설

·고목나무

이 동네의 맨 끝집의 옆에는 아주 오래된 고목이 있다. 동네 어른들 말씀에 이 나무는 지금부터 약 4백년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고목나무 속에는 옛날부터 아주 큰 구렁이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 구렁이가 동네를 지킨다하여 매년 갖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한다. 제사를 안지내면 구렁이가 노하여서 큰 홍수를 일으킨다고 한다. 어쨌든 그 고목나무는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다른 나무보다도 더 푸르게 자라고 있고 그 누구도 이 나무를 베어 내지 못한다고 한다. 고목나무의 웅장한 모습이 우리마을을 돋보이게 하고 흥년이 없는 평화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 같다.

8) 전통놀이 및 대표적 집단행사

이 마을에서는 특별히 전해지는 전통놀이는 없다. 다만 마을 사람들이 집단행사로 경로잔치와 효도관광등이 있어 마을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다. 이밖에도 마을 사람들은 작은 계를 하여 마을 사람들간의 친목을 더욱 다지고 있다.

9) 특별하게 소개할만한 인물

충무공 이순신(1545-1598)

이조 선조때의 명장으로 자는 여해, 시호는 충무, 본관은 덕수, 영종추 부사 변의 후손으로 아버지 이정과 어머니 초계 변씨의 셋째 아들로 한성 건천동에서 출생 어려서부터 용맹하여 전쟁놀이에는 항상 대장이 되었으며 동네에 못마땅한 일이 생기면 그가 나서서 해결 지음으로 동네 사람이 다 두려워하였다. 장성하면서 그는 뜻을 무예에 두어 기사를 연습 훌륭한 재능을 연마하였다. 1576년에 무과에 급제하여 권지 훈련원 봉사로서 처음 관직에 나섰으며 발포 만호를 거쳐 1586년에 사복시주부가 되고 이어 조선 만호가 되었고 녹도 둔전사의가 되었다. 이때 순신은 국방의 정화를 위하여 병력의 증강을 요구하였으나 절도사 이 일에 의하여 부결되었으며 그해 가을 적은 병력으로 호인이 침입하여 많은 양민을 학살하니 순신은 홀로 이를 맞아 싸워 포로 60여 명을 잡아 드렸다. 이일은 피해의 책임을 이순신에게 돌려 그를 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무죄가 판명되어 해임으로 그쳤다. 그후 전라도 이광에게 발탁되어 전라도 조방장 선전관등이 되고 1859년 정읍현감으로 있을 때 유성룡에게 추천되어 고사리 첨사로 승진 이어 절충장군으로 만포첨사 진도군수 등을 지내고 47세되던해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가 되었다. 이때 전쟁이 있을 것을 예측하고 미리부터 군사를 훈련하고 장비를 갖추어 이에 대비하였으며 특히 거북선을 만들어 전쟁에 임하게 하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패장 원균의 요청을 받아 함대를 이끌고 적의 수군과 싸워 이를 도처에서 격파 하였다. 즉 제 1차 는 옥포 적진에서 제2차는 사천 당포울포에서 제3차는 한산도 안골포에서 제4차는 부산포에서 적선을 모조리 격파하여 대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한산도와 부산포의 싸움은 유명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일본군은 결정적 타격을 받고 순신은 완전히 재해권을 장악하였다 이는 그의 위대한 지도력과 탁월한 전술로 인한 것이며 조정에서는 위의 공으로 그에게 정현대부의 벼슬을 주고 최초로 수군통제사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순신의 공을 시기하는 원균일파와 일본의 이간 책으로 1559년 2월에 서울에 압송, 고문 끝에 사형을 받게 된 것을 판중추부사 정탁의 반대로 사형이 면제되어 4월1일 권율의 휘하에서 백의 종군하게 되었다.

이순신을 대신하여 통제사가 된 원균은 안일과 방탕한 생활로 군비를 소모, 정유왜란이 일어나자 일본군과 대항하여 싸웠으나 대패하고 전사하니 수군은 전멸상태에 빠졌다 사태의 긴급함을 느낀 조정에서는 다시 이순신을 통제사로 임명 적을 막게 하였다. 이때 그는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으나 이를 돌볼 겨를도 없이 임지에 도착하니 남은 배는 겨우 12척 뿐이고 군대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조정에서는 이적은 병력으로는 적을 대항하기 어렵다 하여 수군을 폐하라는 명을 내렸으나 순신은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으며 내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 수군을 허술히 보지 못할 것이라는 비장한 결의를 표하고 다가오는 전투를 기다렸다. 이리하여 8월 15일 저의 대부분을 명랑에서 대파하여 다시 재해권을 장악하고 명나라의 건인이 거느린 5천의 수군과 합세 위세를 떨쳤다 적은 곤궁에 빠져 명나라

장군에게 뇌물을 보내 화의를 피하였으나 순신은 이를 반대하고 도요도미가 죽어 일본군이 철수하자 마지막 결전을 시도하여 11월 18일 노량에서 적을 섬멸하였다. 그러나 이대 이순신도 저의 유탄을 맞아 장렬한 최후를 마치고 이때에 그의 나이 54세였다. 산소는 음봉 삼거리에 있다.

10) 종교단체

음봉교회 음봉면 산정45번지 목사 최 만석 종파 : 감리교

11) 공장현황

이 마을에서 가동중인 공장은 조사되지 않았다.

12) 마을의 특성

이 마을은 교통도 매우 좋고 마을도 살기 좋은 곳으로 자연까지 잘 보전되어 있어 그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 같다. 산정리에는 오리농법으로 유기농 채소 및 무농약 쌀을 생산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고 있다.